

‘가정폭력’은 ‘개발협력’ 이슈인가?*

－ 젠더기반폭력과 현황 －

김 양 희 (KOICA 사회개발팀 전문관)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젠더기반폭력의 정의와 원인
- III. 인권과 개발 이슈로서의 젠더기반폭력
- IV. 젠더기반폭력의 형태와 현황
- V.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I. 들어가며

폭력이 인권의 문제이며 사회 부정의(injustice)의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또는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지 않아왔다. 사회가 나서서 척결해야 할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집안에서 또는 개인들 간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적인 폭력’으로 간주했다.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20세기 후반까지도 ‘보이지 않았고(invisible)’, 가정폭력, 성폭력 같은 언어가 생기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

* 이 글은 저자가 지난 9월 KOICA에서 발표한 『젠더분야 이슈리포트 2호: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를 대폭 수정, 보완, 확장한 것이다.

는 문제'였다.

UN은 지난 1979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약칭 CEDAW)'을 채택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UN은 지난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젠더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젠더기반폭력이란 단어는 폭력의 근본 원인이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에서 비롯됨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2008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UNiTE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을 주창하면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다.

II. 젠더기반폭력의 정의와 원인

1. 젠더기반폭력의 정의(definition)

젠더기반폭력은 여성과 남성 간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일컫는 포괄적 용어다. UN Women은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Sexual Violence and Gender Based Violence)으로 구분해 사용하지만, 여러 국제기구들은 성폭력을 젠더기반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젠더기반폭력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제1조는 젠더기반폭력(GBV)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ny act of gender-based violence that results in, or is likely to result in,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harm or suffering to women, including threats of such acts, coercion or arbitrary deprivations of liberty, whether occurring in public or in private life."¹⁾

1)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ticle 1, 1993 (A/RES/48/104)

젠더기반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 성기절단(FGM), 지참금 살인, 명예살인, 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한다. 이를 분류하자면 1) 성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폭력 행위와, 2)가정폭력, 성기절단, 지참금 살인, 명예범죄, 여성혐오범죄와 같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3)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집단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젠더기반폭력은 그러나 위의 양상이 중첩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 동시에 결합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

젠더기반폭력이 반드시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없다. 젠더기반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남성도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대 내 성폭력의 경우는 동성 간의 폭력이지만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젠더기반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아에 대한 성폭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아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추행, 소아성애(pedophilia), 동성강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여성/여아가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대부분 젠더기반폭력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은 부인과 남편이라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성역할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기 때문에 젠더기반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전쟁, 쿠데타, 장기간 무력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분쟁 및 취약국가에서는 폭력에 대한 낮은 민감성과 폭력에 관대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비롯한 젠더기반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젠더기반폭력은 해당국가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관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보인다.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 성기 절단이 관습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명예범죄가 횡행한 것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UN Women은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여아들이지만 남성과 남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2) 미국의 여성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젠더기반폭력의 범주에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여성이 특정 장소를 지나갈 때 느끼는 성폭력의 두려움과 공포는 이미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심리적 폭력이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여성의 삶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이다. Nussbaum C. Martha (2005), “Women’s Bodies : Violence, Security,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 p168을 참조할 것.

2. 젠더기반폭력의 원인

폭력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빚어지는 산물이다.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 통제,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약자가 항상 폭력의 피해자가 돼 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하고, 여성이 가진 경제, 사회적 자원이 적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³⁾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구조적 원인이 젠더기반폭력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UN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Manjoo(2011)는 ‘제도적인 폭력은 구조적 불평등의 형태이며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영속화시킨다’고 지적한다(Manjoo, 2011 : 8).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견 개인 간의 폭력으로 보이기 쉬우나 실상은 기저에 해당 사회의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있고, 여성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사회의 가부장적 통념과 여성에 대한 편견(stereotype)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된다. 이 경우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개인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동시에 당하게 되는 것이다.⁴⁾

젠더기반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사회적 신념과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작동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백인이 흑인보다, 정상인이 장애인보다, 영어가 스와힐리어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구조적 폭력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며, 그 폭력은 다양하고 교차적인 차별의 형태로 제도화된다. 이 가운데 젠더기반폭력은 여성과 남성간의 근본적인 불평등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 경제,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의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젠더기반폭력의 뿌리인 것이다. 한편 가해자가 젠더기반폭력을 통해 권력을 확인하거나 자존감 부족/불만족을 역으로 표현한다는 분석도 있다. 즉, 남성은 젠더기반폭력을 통해 상대방을 무력으로, 성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역으로 자신이 힘을 가진 ‘남성’임을 확인코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젠더기반폭력은 억압의 도구로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무력분쟁지역에서 기존의 구조적 편견

3) Majoo Rashida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N Human Rights Council, p8.

4) 예를 들어, ‘남편은 부인을 지배해야한다’,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면 이는 개인적인 폭력일 뿐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과 결합하여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분쟁지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이 충격적인 전쟁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젠더기반폭력이 지배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녀불평등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도 폭력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개도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상속권, 토지 및 자산소유권에서 배제된 것은 폭력의 구조적 요인에 속한다. 이 구조적 요인이 여성으로 하여금 배우자 폭력에 취약하거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매 맞는 아내’들이 배우자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듯, 여성의 경제적 자원 부족은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폭력의 문제는 여성역량강화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셋째,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저에 권력욕과 통제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은 여성에 대한 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물리적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을 사용한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2등 시민’ 취급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그러한 인식은 폭력에 의해 정당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성차별과 비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폭력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넷째, 해당 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제도가 차별적인 맥락을 영속시키고 그 차별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얻는 자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위계를 유지한다. 개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사회적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차별주의자와 인종차별주의자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특정집단을 배제하는 국가정책, 여성에게 유해한 문화적/종교적 관행, 분쟁과 무력갈등의 영향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폭력이 개개인에 대한 폭력보다 더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의 철폐야말로 국가차원에서 나서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Post-MDG논의에서도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알 수 있다. Post-MDG논의를 위해 구성된 UN 고위급(HLP) 패널들이 펴낸 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전환(A New Global Partnership :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은 12개 글로벌 예시적 목표 가운데 2번 ‘소녀 및 여성역량강화와 성평등 달성(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목표 중 첫 번째 세부목표로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방지 및 근절’을 선정했다.

III. 인권과 개발 이슈로서의 젠더기반폭력

1.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젠더기반폭력

젠더기반폭력은 기존 인권 개념이 공/사 구분을 재조명하면서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비약적으로 주목받게 된 측면이 있다. 기존의 인권 개념은 공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족 또는 개인 간의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기존 인권 개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아가 그러한 인권 개념이 전제하는 권리의 담지자인 인간은 전통적으로 남성을 지칭하였다 (김희강, 2010:106). 예를 들어 가정폭력은 기존의 인권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이 필요한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므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할,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문제가 되면서 인권의 공/사 구분은 변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가족(가정)이 인권의 영역임을 명시하고 있다.⁵⁾ 이처럼 인권의 공/사 개념이 변화한 것은 1970년대 제2기 여성운동(Second Wave)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당시 여성운동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Personal is Political)’라는 슬로건을 통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즉 가정이나 개인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문제들이 사실은 사회 구조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이슈라고 주장했다.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에 이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그동안 가족 간의 갈등으로 치부해왔던 가정폭력, 남녀 간의 애정문제로 간주됐던 성폭력, 직장 내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빈번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언어조차 없었던 성희롱, 기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종류의 폭력들이 실은 여성을 사적인 영역에 묶어두면서 발생한 구조적이며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부각시켰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젠더기반 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여아들이지만 그 피해는 남성과 남아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2. 개발의 측면에서 본 젠더기반폭력

젠더기반폭력은 특히 개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너스바움(2005)

5) 김희강(2010), “여성인권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제 43집 제4호, 106쪽.

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수많은 가치 있는 능력들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역량개발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ussbaum, 2005 : 175). 너스바움은 자신이 제시한 Capability Approach가 인권적 접근이기도 하다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인권과 개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남아프리카 여성농민들의 가정폭력 실태를 인터뷰한 파렌지(2003) 등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 결여가 여성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며, 폭력이 개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Parenzee&Smythe, 2003 : 7). 이들은 가정폭력이 저개발을 영속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은 가정폭력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⁶⁾

MDG와 관련해서 젠더기반폭력은 첫째, 성평등 증진과 여성 역량강화를 어렵게 만들고 둘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셋째 HIV 감염위험을 높이는 등 상당한 보건비용을 발생시킨다. 개발목표에 젠더기반폭력을 통합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결여돼있다는 점이다 (Manjoo, 2012).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위와 발생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부족은 이 문제를 ‘가시화’시키는 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젠더기반폭력을 처벌할 법적, 제도적 조치가 부재하거나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어서 젠더기반폭력의 발생빈도와 발생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피해자 보호전략, 지원서비스 등을 계획,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기반폭력은 성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 외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중위급 개발도상국에서 젠더기반폭력은 공중보건문제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법제도, 사회서비스, 사회적 주택 및 법적 비용 등 연간 2300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homson, 2012 : 12에서 재인용). 폭력 피해 여성은 일자리, 집, 건강을 잃을 뿐 아니라 물리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며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6) Parenzee&Smythe (2003), *Domestic Violence and Development : Looking at the Farming Context*, Institute of Criminology, University of Cape Town, South Africa

IV. 젠더기반폭력의 형태와 현황

오늘날 가정폭력, 성폭력, 성기절단, 성희롱, 인신매매, 여성혐오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젠더기반폭력은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만연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UNIFEM이 지난 1993년 월드뱅크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15-44세 사이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건강위협요인가운데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암, 자동차사고, 전쟁, 말라리아보다 순위가 높았다.⁷⁾ 차이가 있다면 선진국은 이를 제재할 법적, 사회적, 제도적 수단들이 구비돼 있고 젠더기반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는 반면, 일부 개도국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 이데올로기 속에서 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할 제도적 수단과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UNICEF와 UN Women이 덴마크 정부와 가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불평등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5%-71%가 친밀한 파트너(배우자)로부터 물리적 또는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년 50여 만 명의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되고 있다(UNICEF&UN Women, 2013). 더욱이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은 젠더기반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일반 여성들보다 2배 이상 높고 더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여성의 83%, 지적장애 남성의 32%가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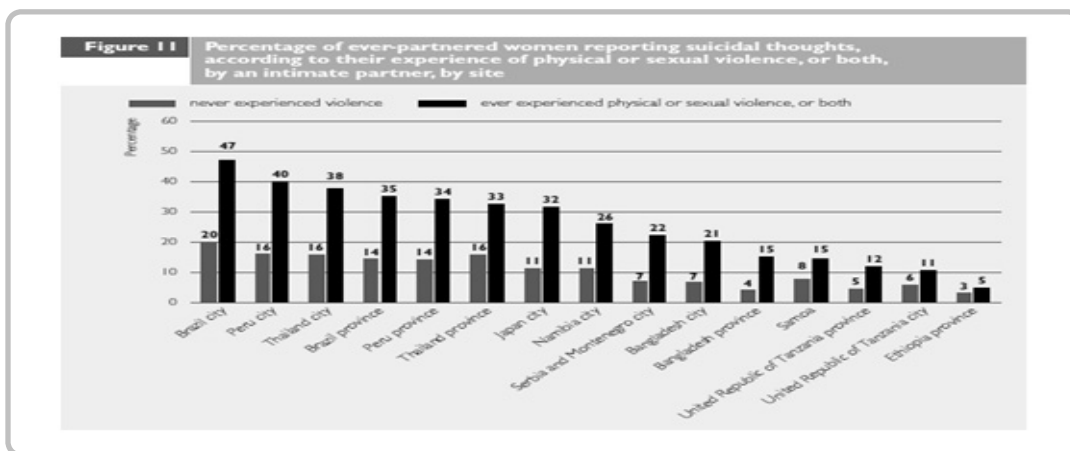
특히 분쟁 취약국에 살고 있는 여성과 여아들은 ‘취약한 자들 가운데 더욱 취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장기간의 무력갈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기반폭력의 위험을 고조시킨다. 일부 무장단체들은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전쟁무기로서의 강간’(rape as a weapon)을 자행하기도 한다. 구 유고슬라비아, DR콩고, 르완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우간다 북부, 체첸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인 2012년 3월에도 아프리카 말리(Mali)에서 무장단체들 간의 전투 도중에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여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례가 보고됐다 (UN Women, 2012). 당시 UN Women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개인 및 집단 성폭력 사례만 50여건이 보고됐는데 사실상 피해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곤 하기 때문이다.

7) UNIFEM (2007), Violence against Women-Facts and Figures. www.unifem.org.

8) UN Women&UNICEF (2013), *Addressing Inequalities: Synthesis Report of Global Public Consultation, Global Thematic Consultat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WorldWeWant*, p39.

WHO는 HIV/AIDS 전염의 맥락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긴급한 건강 문제라고 진단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의 HIV/AIDS 및 성병 감염 위험을 높이며 심신질환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WHO가 지난 2005년 실시한 ‘여성건강과 가정폭력에 대한 다국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분쟁지역에서 여성과 여아들이 성노예, 집단성폭력, 무장반군에 의한 강제결혼(Bush Wife)⁹⁾,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집, 가족, 고향을 잃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폭력 후 검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 이 모든 요소들이 여성과 여아들을 HIV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정신적 분열, 사회적 낙인, 배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그림 1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고려한 여성의 비율을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폭력 피해여성들이 자살을 고려한 비율이 조사대상 국가 모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고려한 여성 비율(국가별)



출처 : WHO(2005), 여성건강과 가정폭력에 대한 다국가 연구 보고서

9) Bush Wife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숲에서 만난 아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다. Bush Wife는 반군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뒤 강제로 아내 또는 성노예가 된 여성들을 칭하는 용어다. 보건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약 6만여 명의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Bush Wife형태로 강제결혼을 통해 반군의 성노예가 된 것으로 추정한다. Bush Wife 가운데에는 어린 소녀들뿐만 아니라 반군의 총격으로 남편과 자식을 눈앞에서 잃은 채 강제로 그 반군의 아내가 되어야 했던 여성 등 기막힌 사례들이 있다. Bush Wife사례는 시에라리온, 우간다, DR콩고 등 내전발생지역에서 대거 나타났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결혼을 명백한 반도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Bush Wife에 대한 보도는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2008), “In Africa, justice of ‘bush wives’”, Published on 10 July 2008. Available at : <http://www.csmonitor.com/World/Africa/2008/0610/p06s01-woaf.html> [Accessed : 10 July 2013]를 참조할 것.

이 글에서는 젠더기반폭력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만연한 형태의 폭력인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이라는 점과 분쟁취약국에서 빈번하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전쟁무기로서의 강간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1. 가정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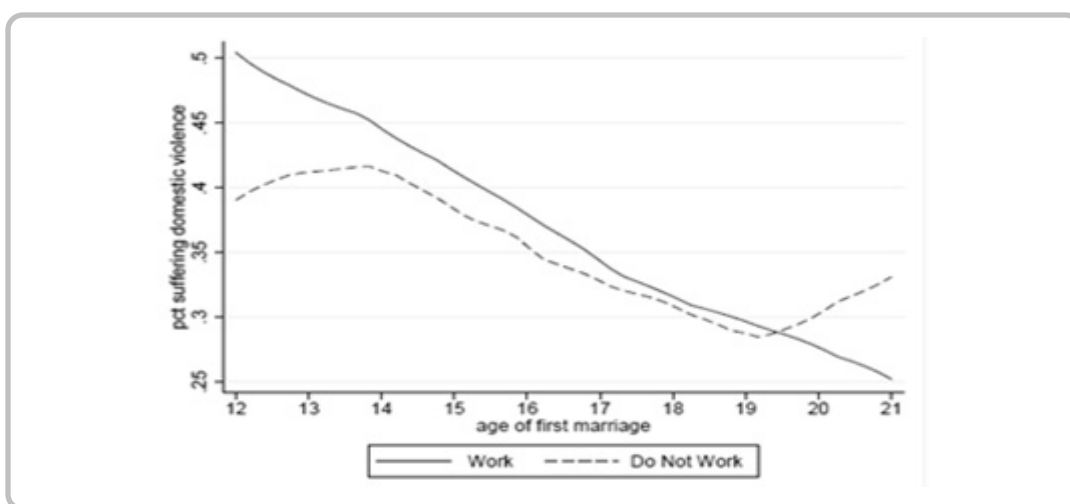
흔히 전 세계 여성 3명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아는 사람’(someone known to her)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및 기타 폭력을 경험한다(UNIFEM, 2007)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대단히 만연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이다. 월드뱅크가 지난 1994년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5-44세 사이 여성 사망원인조사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암, 자동차 사고, 전쟁, 말라리아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랐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지칭했으나 최근에는 남편뿐 아니라 남자친구, 동거남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을 통합하여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다. 부부강간처럼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30%-50%는 성폭력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5).

성폭력은 낯설고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친밀한 관계, 예를 들면 남편, 아버지, 남자친구, 친척, 이웃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훨씬 높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 통제, 억압,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을 자행하기 때문이다. UNIFEM이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살해된 여성 중 절반이상이 남편이나 동거남에 의해 총기, 구타, 방화로 인해 사망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사망한 가임기 여성의 13%는 살해됐으며 이중 60%는 남편이나 동거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UNIFEM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1,327건을 조사한 결과, 36명이 살해됐으며 이중 44.4%인 16건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적인 것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HIV/AIDS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WHO가 10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건강과 가정폭력에 관한 WHO 다국가 연구’에서 남아프리카 여성 1,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매 맞는 아내’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HIV/AIDS에 감염될 확률이 48%나 높았다(WHO, 2005).

가정폭력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정 내에서 협상력이 적을수록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가정 내에서 협상력을 적게 가진 여성일수록 가정폭력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World Bank, 2012).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게, 교육수준이 낮고 가정 내에서 발언권이 적은, 즉, 억압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여성일수록 직업을 가졌어도 남편에게 매를 맞을 확률이 높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 연령이 높고 교육 연한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정폭력 피해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교육과 여성의 충분한 심리적, 사회적 성숙에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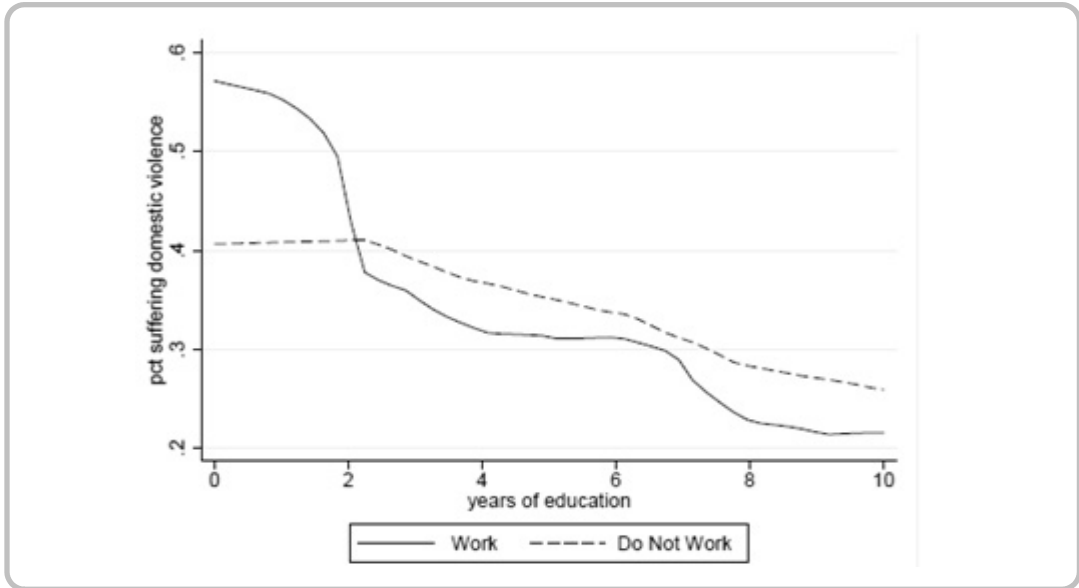
아래 그림2는 혼인연령, 노동시장 참여, 가정폭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다. 그림2의 그래프를 보면 혼인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높다가 혼인연령이 20세를 넘어가면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혼은 가정폭력을 유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3은 교육 정도, 직업, 가정폭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그래프다. 그림3의 그래프를 보면 교육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직업유무와 큰 상관없이 가정폭력율이 대폭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직업유무에 따라 가정폭력 비율이 소폭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교육연한이 길수록 가정폭력비율이 대폭 하락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혼인연령,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폭력과의 상관관계



출처 : 월드뱅크(2012)

〈그림 3〉 교육 연한,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폭력과 상관관계



출처 : 월드뱅크(2012)

2. 성폭력

젠더기반폭력가운데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여성들을 위협하는 가장 만연한 형태의 폭력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해, 성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도 정확하게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UNIFEM은 여성 5명 가운데 한 명은 일생 중 성폭력이나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9학년 학생(중3)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조사에서 응답자의 20%가 최소 1번 이상 성폭력, 성희롱, 불쾌한 성적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UNIFEM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에서는 단지 5%의 여성들만이 콘돔이 HIV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지식과 권력의 부족으로 여성들이 성폭력에 취약한 상황인 것이다. 성폭력의 또 다른 문제는 단순히 폭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낙인을 찍고 사회적 배제로 작동한다는 데에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데도 오히려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뒤집어쓴 채 오히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성폭력이 화간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성폭력이 피해여성들에게는 이

처럼 큰 물리,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입히며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많은 남성들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폭력을 ‘재미보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최근 세계적인 보건의료 학술지 란셋(Lancet)에 게재된 논문은 성폭력이 가해자 남성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임을 나타내고 있다(Jewkes et al, 2013).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에 관한 학술연구는 많았지만 가해자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을 볼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연구팀이 동남아와 태평양지역에서 남성 10,178명을 인터뷰한 결과 2.5%(방글라데시 산간지방)–26.6%(파푸아 뉴기니)의 남성이 성폭력 가해 경험을 갖고 있으며 1.4%(방글라데시 도시지역)–14.1%(파푸아뉴기니)의 남성은 여러 번 성폭력을 자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남성을 성폭력한 동성간간도 1.5%–7.7%에 이르렀다. 충격적인 것은 성폭력 이유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성적 욕구를 채울 권리가 있다(sexual entitlement)’는 응답이 73.3%, ‘재미(seeking of entertainment)’가 58.7%, ‘처벌(punishment)’이었다는 응답이 37.9%, ‘술때문’이었다는 응답이 27.0%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지역 남성들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고려와 범죄라는 인식 없이 성폭력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증거다.¹⁰⁾ 그러나 이중 성폭력으로 인해 기소됐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는 1,933명 가운데 443명(2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사회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미비한 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건적 맥락, 즉 여성의 건강과 HIV/AIDS 감염 및 전파의 맥락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최대 보건관련 국제기구인 WHO가 주도적으로 젠더기반폭력을 HIV/AIDS 예방 및 확산의 맥락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까닭도 있지만, 젠더기반폭력으로 인한 HIV/AIDS 감염 및 확산의 심각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WHO는 인구기반 조사에서 10–69% 여성들이 일생동안 최소 1회 이상 남성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성폭력은 HIV 감염

10) Jewkes Rachel, et al.(2013),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non-partner rape perpetration : findings from the UN Multi-country Cross-sectional Study on Men and Violence in Asia and the Pacific, *Lancet*, September 10, 2013, e1–e11. 이 연구는 Rachel Jewkes 박사를 필두로 한 연구팀이 남성과 폭력에 관한 UN 다국가 다부문연구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스리랑카에서 18–49세 사이 남성 10,178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다. 응답자들은 최초의 성폭력 가해경험을 10대에 했으며 한 번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남성은 그 이후에도 여러번 성폭력 가해경험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팀은 아동 및 청소년기에 반드시 성폭력예방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문화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사회화과정과 남성중심적 권력관계, 아동기 학대경험과 빈곤문제에 대처해야 성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여성 건강문제라고 지적한다(WHO, 2005). 성폭력이 HIV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여성이 물리적 폭력이나 폭력위협으로 인해 안전한 성 관계를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렸을 적에 아동성폭력에 노출됐던 여성은 HIV와 관련한 위험한 행위 즉 약물중독, 여러 명의 파트너 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에게 유리한 불공평한 이혼제도, 이혼 후 부족한 경제적 자원, 이혼녀에 대한 낙인, 제도적 지원미비 등도 여성이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여성에게 미치는 건강적 측면에서도 젠더기반폭력의 영향은 지대하다.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6% 높으며 유산, 우울증을 겪을 확률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았고 일부지역에서는 HIV 감염확률이 1.5배 높았다 (WHO, 2013:2). 젠더기반폭력의 지역별 발생률을 보면 남아시아, 남미 안데스지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발생률이 40%–65%를 넘었다.¹¹⁾ 이로써 저개발, 저소득국가에서 젠더기반폭력 발생률과 이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젠더기반폭력은 여성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의 이슈이기도 하다. 이처럼 만연한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젠더기반폭력관련 법률과 제도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여성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 상승과 함께, 아동기부터 청소년,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전쟁무기로서의 공간

일부 무력갈등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성폭력, 집단강간 사례는 성폭력이 약자를 지배, 통제,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무력분쟁 도중 발생한 인종청소 및 성폭력 사례는 성폭력이 이미 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넘어 한 사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무기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구 유고슬라비아, DR콩고, 르완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우간다 북부, 체첸 등 분쟁지역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성폭력이 대거 자행했다. 구유고지역에서는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는데 최근 국제사회는 이를 전쟁무기로서의 성폭력 (sexual violence as a weapon of war)이라 지칭하고 있다. 아래 표1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전쟁무기로서의 성폭력 사례들이다.

11) WHO et al.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WHO, p47.

〈표 1〉 전쟁무기로서의 성폭력 사례

〈전쟁무기로서의 성폭력 사례〉
1. 1992-199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무력분쟁동안 2만-5만명의 이슬람 여성 가운데 약 1.2%가 성폭력 피해 입음.
2.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 전투로 인한 대학살 당시 최소 25만 명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
3. 라이베리아 5년전쟁 말기에 여성의 49%가 군인이나 반군으로부터 최소 1회 이상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

출처 : 저자 작성

성폭력은 신체손상뿐 아니라 트라우마, 사회적 낙인, 사회적 배척 등으로 이어지며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원치 않은 임신, 유산, 성병, HIV 감염위험을 상승시킨다. WHO는 분쟁지역 반군이나 군인의 경우 성병이나 HIV보균자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성병이나 HIV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르완다의 경우 1994년 무력분쟁 시작 전에 1%였던 HIV 유병률이 1997년 11%로 단 3년 만에 10% 상승했다. 당시 약 30만-40만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한 것으로 추정된다(World Bank, 2013:13). 르완다 학살 생존 과부협회(Rwandan Association for Genocide Widow (AVEGA) or Rwanda Genocide Widows Association) 조사에 따르면 강간피해 생존자의 67%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후에 젠더기반폭력 발생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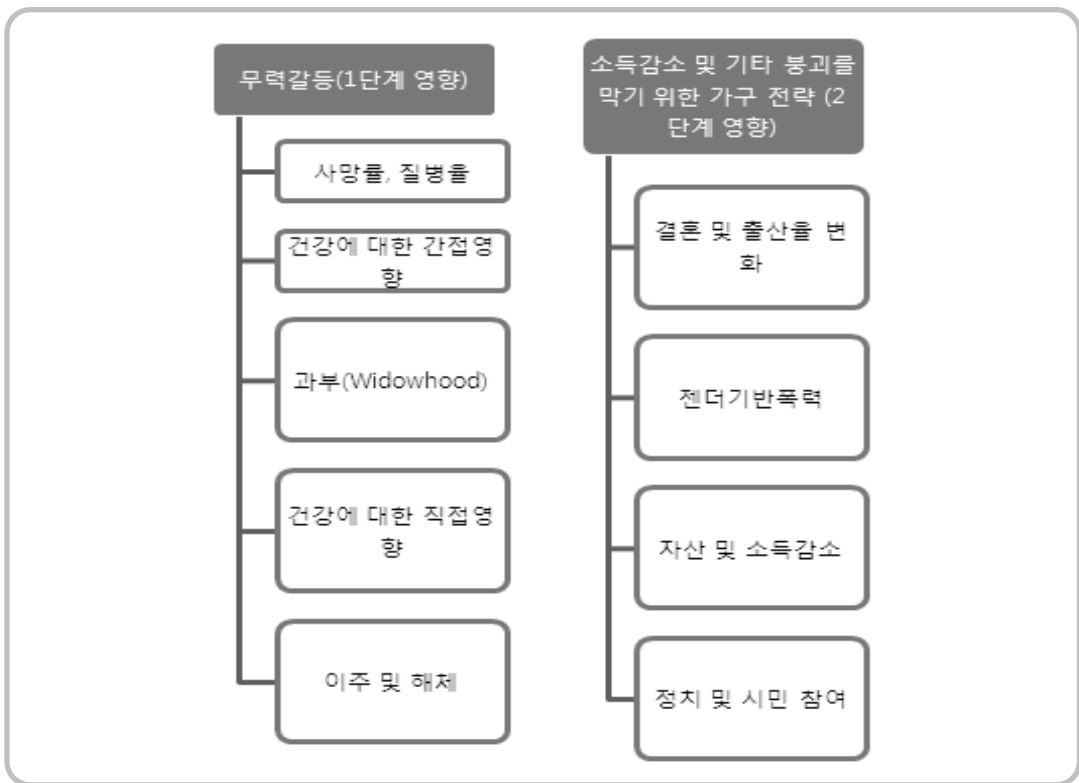
분쟁지역 여성과 여아들이 성병과 HIV에 취약한 것은 첫째, 성폭력을 통한 직접 감염, 둘째, 생존형 성매매로 인한 감염, 셋째, 전반적으로 폭력의 수위가 높은 상황에서 콘돔 등 안전한 성관계를 협상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쟁으로 인한 또 다른 비극은 집, 가족, 소득원, 사회적 지지를 잃은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생존형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여성 피해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음식, 잠자리, 생필품을 얻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DR 콩고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확대적인 성관계가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조성되었고, 민간인과 무장반군을 막론한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를 무력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젠더기반폭력이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무력분쟁지역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관대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12) Buvinic Mayra et al. (2013), *Violent Conflict and Gender Inequality : An Overview*,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371, World Bank.

데다가, 가해자 처벌법이 없거나,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고, 경찰, 보건, 기타 서비스당국이 아예 조사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UN 안보리는 지난 2000년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채택, 무력분쟁에서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해 지난 2012년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세부목표를 분쟁예방, 여성참여 및 보호, 구호 및 재건 등의 분야로 구분해 수립했다.

〈그림 4〉 무력갈등 영향도



출처 : World Bank(2013), 저자 재작성

젠더기반폭력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이거나 젠더기반폭력을 목격한 어린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 행위와 학대를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폭력과 학대가 세대를 걸쳐 영속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최대 15억 명의 어린이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1억5000만 명의 여아와 7300만 명의 남아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성폭력,

물리적 폭력, 심리적 학대, 감정적 학대, 무시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아프리카 전체 어린이들 중 70%가 18세 성인이 되기 전에 물리적, 감정적, 언어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의 68%가 18세 이전에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4는 월드뱅크가 무력갈등으로 인한 젠더기반폭력의 영향력을 도식화한 것이다. 무력갈등은 1단계에서 사망률과 질병을 증가,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 과부증가, 이주 및 가족 해체 등을 유발한다. 2단계에서 각 가구는 무력갈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기타 자산 및 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혼인 및 출산율 증가, 젠더기반폭력 증가, 자산 및 소득 감소, 정치 및 시민참여 등의 전략을 구사한다.

V.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지금까지 젠더기반폭력이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편견의 결과임을 살펴보고 가정폭력, 성폭력, 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젠더기반폭력의 3가지 형태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들은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기위해서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어느 한 부문만이 아닌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es)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Thomson, 2012; USAID, 2009; Jewkes et al, 2013; UN Women, 2012; World Bank, 2013). 일례로 Thomson은 post-MDGs의 성평등 및 여성/여아 역량강화 목표에 젠더기반폭력을 단독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모든 관련 분야에 젠더기반폭력 지표와 세부목표를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이중접근(twon-track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Thomson, 2012 : 14).

구체적인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면 국제기구와 해외원조기관들은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크게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 법령 정비 및 제도 지원 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 2)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리적, 경제적,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3) 젠더기반폭력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 및 활동가 지원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의 예로는 폭력예방캠페인, 시민운동 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 자활교육사업,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있다.

USAID, AusAID, CIDA 등 해외원조기관들과 UN Women, UNICEF, WHO 등 국제기구들

은 여성 폭력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과 동시에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UN은 매월 25일을 ‘오렌지 데이(Orange Day)’로 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UN Women은 UNFPA, UNICEF, WHO와 손잡고 내전으로 인해 추방된 여성과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프로젝트에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고취 캠페인, 난민캠프에 있는 여성과 여아들 207명에게 소득창출 프로그램 교육,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실시했다.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40명의 전문가 집단이 상담 서비스를 맡았다.

UN Women은 또 2010년부터 2년간 모잠비크에서 3가지 방식으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고취사업이 골자다. 사업방식은 첫째, 800여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들과 함께 3일간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 남녀학생 교육,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둘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성대상 폭력방지를 주 내용으로 한 TV프로그램을 병행했다. 셋째, 모잠비크 국가대표 여성농구팀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티셔츠, 셔츠, 가방 등에 UNite캠페인의 메시지를 부착해 광범위한 홍보효과를 노렸다. 2010년 모잠비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게임(All African Games)에 참가한 2만 명의 선수와 수만 명의 관람객들, TV시청자들이 타깃 대상이었다.¹³⁾

한편 WHO, UNHCR, UNFPA 등은 젠더기반폭력을 여성 건강이슈로 다루고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WHO는 무력분쟁 국가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물리적 상해에 대한 치료, 임신예방 및 합법적 중절, 성병 검사 및 치료, 카운셀링 등 심리사회적 지원, HIV검사 등을 지원한다.

다음 표는 UN Women이 제시한 젠더기반폭력 측정 지표들이다. UN Women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권한 및 역량강화 목표를 위해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역량 및 자원의 성평등, 정책결정과 공사영역에서의 성평등을 3가지 요소로 들고 지표들을 만들었는데 이 중 젠더기반폭력 지표는 다음과 같다.

13) UN Women (2012), "Uniting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Mozambique : The Story of Chissomo," *UN Women Changing Lives in Africa 2012*, UN Women.

〈표 2〉 젠더기반폭력 지표

장기 목표	폭력으로부터 해방
단기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여아대상 폭력 예방 및 대응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태도, 행동 변화 - 안전한 삶 확보, 피해자 지원서비스, 성폭력사건에 대한사법 정의 구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2개월간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15세 이상 여성 비율 - 여성성기절단 및 기타 유해한 관행 실행 비율 - 남편의 부인구타행위를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성별통계) - 과거 12개월간 당한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사법당국에 신고한 15세이상 여성 비율 - 판사, 경찰등 사법집행당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비율

출처 : UN Women (2012), 저자 재작성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USAID는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젠더기반폭력 프로그램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USAID의 젠더기반폭력사업 원칙은 첫째, 폭력의 근본적인 뿌리에 대처, 둘째, 예방 및 보호 증진, 셋째,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건 및 경제적 지원, 넷째, 젠더기반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지원 등이다.¹⁴⁾ 이의 일환으로 USAID는 지난 2012년 9월 미국인 간호사들을 스와질랜드로 파견해 현지 보건 인력들에게 성폭력피해자 지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지 간호사, 의사들이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종의 ‘멘토십 프로젝트’를 2년간 진행했다. USAID는 이밖에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 교육, 연구 지원사업과 함께, 여성/여아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소득창출기회 증진사업을 병행하면서 해당국가에서 성평등한 법률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 3은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법, 복지, 교육, 보건, 관습적 측면에서 해당국가의 젠더기반폭력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14) USAID (2012), *United States Strategy to Prevent and Respond to Gender-Based Violence Globally*, USAID, p10.

〈표 3〉 젠더기반폭력 영향력 지표

젠더기반폭력 영향력 지표	
가정폭력과 성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배우자, 남자친구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한 15-49세 사이 여성 비율
여성성기훼손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FGM/성기절단을 당한 15-49세 사이 여성 비율
조혼 (early marriage)	18세 이전에 결혼한 18-24세사이 여성 비율
인신매매 (trafficking)	도착국이나 도착지역에서 기관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여아의 수
여성혐오범죄 (femicide)	젠더기반 원인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사망한 여성 비율
사법제도&보안 (justice&security)	사법당국에 기소된 젠더기반폭력사건 비율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젠더기반폭력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여아의 수
인도적 응급처치 (humanitarian emergencies)	성폭력 발생 72시간내에 보건시설/요원에게 보고돼 적절한 치료를 받은 성폭력 생존자 비율
보건(health)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비율
교육(education)	성적학대 사건 관련 절차와 규정을 설립한 학교 비율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젠더기반폭력은 여성에 대한 사회, 문화, 구조적 차별과 편견 그리고 가부장적 인식이 사회속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사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폭력예방캠페인, 폭력예방교육 같은 교육과 사회적 인식 촉구, 그리고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결합돼 실천될 때 젠더기반폭력이 감소하고 개발협력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 『젠더분야 이슈리포트』 2호, 한국국제협력단.

김희강 (2010), “여성인권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제 43집 제4호.

Jewkes Rachel, et al.(2013),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non-partner rape perpetration : findings from the UN Multi-country Cross-sectional Study on Men and Violence in Asia and the Pacific, Lancet, September 10, 2013, e1-e11.

Nussbaum C. Martha (2005), “Women's Bodies : Violence, Security,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 Routledge.

Rachel Heath(2012), Women's Access to Lab Market Opportunities, Control of Household, Resources and Domestic Violence :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149, World Bank.

Rashida Manjoo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N General Assembly.

UN General Assembly(2006) In-Depth Study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2006. A/61/122/Add.1. 6 July 2006.

UNIFEM (2007), Violence against Women-Facts and Figures, November 2007.

_____ (2009), A Life Free of Violence : Unleashing the Power of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Strategy 2008-2013.

UN Women (2012), “More than 1,000 surviv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ceive Holistic Services in Mali,” UN Women Changing Lives in Africa 2012, UN Women.

_____ (2012), “Uniting to Ender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Mozambique : The Story of Chissomo,” UN Women Changing Lives in Africa 2012, UN Women.

_____ (2013), “A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 In the context of Post-2015 Framework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Women Note on Gender Equality Goal, UN Women.

UN Women&UNICEF (2013), Addressing Inequalities : Synthesis Report of Global Public Consultation, Global Thematic Consultat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WorldWeWant.

USAID (2009), A Guide to Programm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and Response Activities, USAID.

_____ (2012), United States Strategy to Prevent and Respond to Gender-Based Violence Globally, USAID.

WHO(2004), "Violence against Women and HIV/AIDS : Critical Intersections : Sexual Violence in conflict Settings and the Risk of HIV," WHO Information Bulletin Series, Number 2, WHO.

_____ (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 Summary Report, WHO.

WHO et al.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WHO.

〈해외 사이트〉

DFID(2013), Case Study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Nepal.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case-studies/ending-violence-against-women-in-nepal> [Accessed 30 May 2013]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2008), "In Africa, justice of 'bush wives'". Published on 10 July 2008. Available at : <http://www.csmonitor.com/World/Africa/2008/0610/p06s01-woaf.html> [Accessed : 10 July 2013]

UN Women, Gender-Based Violence. Available at http://www.unifem.org/gender_issues/women_war_peace/gender_based_violence.html [Accessed 29 April 2013]

UN Women, Facts&Figures on VAW. Available at http://www.unifem.org/gender_issues/women_war_peace/facts_figures.html [Accessed 28 May 2013]

U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Available at http://www.unifem.org/gender_issues/violence_against_women/index.html [Accessed 28 May 2013]

USAID(2012), Post-rape Care Helps Swaziland's Youngest Survivors, <http://www.usaid.gov/results-data/success-stories/post-rape-care-helps-swazilands-youngest-survivors/> [Accessed 1 August 2013]

WHO(2004), Violence against Women and HIV/AIDS Information Sheet, <http://www.who.int/gender/en/infosheetvawandhiv.pdf>. [Accessed 5 June 2013]

Women's Refugee Commission, Gender Based Violence. Available at <http://www.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gender-based-violence> [Accessed : 28 May 2013]